

2015 미소 선생의 국가직 9급 해설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대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답) ③. [난이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던’은 해라할 자리에 쓰여,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이다. 연예인을 직접 본 것에 대한 물음이므로 적절하다.

- ① ‘다고해’의 준말은 ‘-대’로 적는다. ‘~ 간대요?’
- ② ‘-더라’의 준말은 ‘-데’로 적는다. ‘~ 잘하데’
- ④ 직접 경험한 것이므로 ‘~ 크대요’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답) ③. [난이도 중,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의존명사로 띄어써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사로 쓰인 안은 뒷말과 띄어 쓴다.

- ① ‘하다’가 붙어서 한 용언으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도외시하였기’
- ② ‘밖에’가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대리전으로 밖에는’
- ④ ‘-지’는 어미일 때 붙여 쓴다. ‘회복될지’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답) ②. [난이도 중, 조사의 쓰임] - 예상한 문제 유형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될 때 사용하는 동사 ‘한하다’는 ‘~에 한하다’의 꼴로 쓴다.

- ①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④ 앞말이 거리까지 아니할 때 쓰는 동하는 ‘불구하다’이다. 이때는 ‘~에도 불구하고’ 꼴로 사용한다.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답) ②. [난이도 중,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핵심을 벗어나 지엽적인 것을 확대하고 트집 잡는 것은 근본을 잊고 사소한 것에 사로잡힌 ‘본말전도(本末顛倒)’에 해당한다.

- ①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 ③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 ④ 불교에서 돈오(頓悟), 즉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단계가 따른다는 말.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ㄷ - ㄴ - ㄱ

답) ③. [난이도 하, 글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접속어나 지시어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ㄷ’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할 문장이 된다. ‘태양에 움직임에 따라 생활(ㄷ) → 불과 빛을 이용한 야간 활동(ㄹ) → 인류 문명의 발달(ㄱ) → 잠을 빼앗기고 생체 리듬을 잃음(ㄴ)’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옳다.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답) ③. [난이도 중, 전개방식] - 예상한 문제 유형

여기서 길잡이는 ‘리더’에 해당한다.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십의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유추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은 ③이 적절하다.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짚게 돌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답) ①. [난이도 중, 사실적 내용 파악]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 ③ 팽과리, 징, 장구, 북
- ④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답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답) ③. [난이도 중, 사실적 내용 파악]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 ②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 ④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떨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답) ③. [난이도 중, 고전수필] - 예상한 문제 유형

‘설(說)’은 고전수필의 한 장르인데, 주 특징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서술한다. 이 글도 말을 빌려 타는 것에서 인간의 소유관념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① 말을 빌려 탐(경험), 사람의 변덕스러움(통찰력)
- ② 말을 빌려 타는 것에서 빗대어 사람의 소유에 대한 변덕스러움을 잘 드러내었다.
- ④ 말을 빌려탐(일상사), 사람의 소유에 대한 변덕스러움(주장)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답) ④. [난이도 중, 논리 & 전개방식] - 예상한 문제 유형

참되지 않는 이론은 거부되듯이 법과 제도로도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추의 방법을 쓴 글이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 ④이 적절하다.

- ① 연역추론
- ② 대조
- ③ 귀납추론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답) ①. [난이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셈을 맞추다.’는 ‘치다’로 쓴다. 그러므로 ‘치어주마’로 써야 한다. 준말은 ‘쳐주마’가 옳다.

- ②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 ③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 ④ 매우 세게 박히다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답) ④. [난이도 중, 현대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젊게 보인다’의 꼴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본용언으로 봐야 한다.

- 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다.
- ②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동사다.
-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다.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답) ②. [난이도 하, 단어의 관계] - 예상한 문제 유형

반대관계가 아닌 것을 찾으려 한다. ‘사고’와 ‘비판’은 상하관계로 반대관계가 아니다.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답) ④. [난이도 중,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 ②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③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뿔도 찢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답) ②. [난이도 중, 시조] - 예상한 문제 유형

중심대상은 ‘승하하신 임금’이다. 여기서 ‘눈비’는 벼슬하지 않고 어렵게 살고 있는 화자의 삶을 비유할 뿐 연결 매개체는 아니다.

- ① 벼슬하지 않아 비단옷이 아닌 베옷을 입고 지낸다는 말이다. 가난한 화자의 삶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임금이 승하한 곳 즉 궁궐이 된다.
- ④ 승하를 슬퍼하는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었다.

미소 내공

군신 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정신을 잘 보여주는 조식의 작품이다. 벼슬하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는 몸이라 국록을 먹거나 군은(君恩)을 입은 바 없지마는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마음을 적은 시조이다.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쇠동이, 장난기
-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답) ①. [난이도 중, 단어의 구분] - 예상한 문제 유형

실질형태소 두 개가 결합된 합성어를 찾으라는 문제다.

- ② 면도-칼: 합성어, 서리-발: 합성어, 쇠-동이: 파생어, 장난-기: 파생어
- ③ 깍-두기: 파생어, 선생-님: 파생어, 작-은-형: 합성어, 핫-바지: 파생어
- ④ 김치-찌개: 합성어, 돌-다리: 합성어, 시나브로: 단일어, 암(=)-닭: 파생어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답) ①. [난이도 중, 중심내용의 파악] - 예상한 문제 유형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인문학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①이 적절하다.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4 다양한 정보의 습득	59.0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46.6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13.1 다양한 의견의 장	12.9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3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83.9 성인 음란물 유통	56.2 개인 정보 유출	16.1 저작권 침해	10.2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답) ④. [난이도 하, 자료의 해석]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88.4%로 다양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다.
- ② 56.2%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므로 보안 강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 ③ 84.3%로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답) ④. [난이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잠을 깨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시간일 뿐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은 아니다.

미소 내공

이 시는, 해방 직후 혼자 상경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그가 무산(茂山)의 처가에 두고 온 그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5연으로 이루어진 자유시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기·승·전·결의 전형적 형식에 수미 상관의 구조를 결들인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연[기]에서 시인은 '북쪽 작은 마을'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으며, 2~3연[승]에서는 어느덧 시인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북쪽의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 곳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을 이용해 '느릿느릿 밤새워 달려'야 다다르는 깊은 산골이다. 지금쯤이면 그 곳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의 검은 지붕에도 눈이 내릴 것이며, 가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4연[전]에서 화자는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그러므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시행의 '차마'라는 시어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쩌자고 잠을 깨어'라는 구절은 바로 시인이 머물고 있는 서울도 잉크병마저 얼게 할 정도로 추운데, 그 곳 무산의 가족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는 화자의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5연[결]에는 '북쪽 마을'에 함박눈이 쏟아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연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묻는 단순한 질문이라면, 5연은 동일한 시행이면서도 시인의 그리움 내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침내 눈으로 화하여 쏟아져 내리

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잉크도 얼어붙게 할 정도의 추위를 몰아오는 '함박눈'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것을 '복된 눈'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태도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족들을 처가에 남겨 두고 상경하였던 그로서는 '눈'을 새 시대를 위한 하늘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시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함박눈'과 추위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으며, 잉크마저 얼어붙게 하는 모진 추위는 역설적으로 시인의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 주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 : 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 ‘성공 : 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 장난감 블록’
- ③ 로맹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맹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 : 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웃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 웃차림’

답) ④. [난이도 중, 단어의 관계] - 예상한 문제 유형
액자를 통해 작은 그림이라는 단점이 보완된 것이다. 즉 보이는 포장에 내용물을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내면을 돋보이도록 한 화려한 웃차림이 적절하다.

총평 : 2015년 국가직 시험은 작년과 같이 지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6문항 출제되어 작년보다 2문항 줄었다. 구체적 영역은 맞춤법, 띄어쓰기, 조사의 사용, 보조용언의 구별, 단어의 구분 등이다. 조사와 보조용언의 구분은 국어 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려된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은 국어문법 영역을 잘 정리해 두는 학습태도가 필요하다.

읽기와 쓰기는 7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같았다. 지문은 평이했고, 문장의 순서를 잡는 유형이나 설명방식을 물었는데, 익숙한 유형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영역은 항상 강조했듯이 평소에 생소한 지문을 지속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문학은 조식의 시조, ‘차마설’, 이용악의 ‘그리움’ 등 3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같았다. 고전문학은 주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시는 선입관 없이 기초 감상법에 충실해서 접근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업시간에 그 감상법을 익혀 두고 연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휘는 4문항이 출제되었다. 한자성어와 단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각각 2문제씩 출제되었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자성어는 한자문제가 아니므로 뜻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하며 단어의 관계는 문맥에서 찾아야 한다. 단어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15년 국가직 시험은 수험생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가 출제되지 않아 체감 난도는 아주 낮았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도 상인 문제는 없었다. 난도 중인 문제가 17문제, 난도 하인 문제가 3문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만점을 맞아야 하며,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국어 점수는 95점 정도는 나와야 하는 정말 쉬운 시험으로 분석된다.

[미소 강경욱 선생의 4월/5월 강의계획]

- 강좌명 : **2015 서울시 & 지방직 동형모의고사(8주 완성)**
- 시간 : 월 - 09:00~12:50 (4/27개강)
☞ 매주 최신허향의 서울시 & 지방직 동형문제
총 36회 해결(총 720문제 해결)
- 강좌명 : **2015 서울시 지식국어 다잡기(4주 완성)**
- 시간 : 화 - 14:00~17:50 (5/12개강)
- 강좌명 : **9급/ 7급 미소국어 이론 완성반(2개월 완성)**
- 시간 : 수목 - 14:00~17:50 (5/13개강)
금 - 09:00~12:50 (2주차부터 격주)
☞ 미소국어 1권, 2권, 3권을 모두 수업합니다!